

여기까지와 글을 쓰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종익 선생님 강의 속 해설에서 의문을 가져 질문게시판에 질문을 게시한 3월 13일부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3월 20일 이 사이의 시간 동안 저는 윤리와 사상 관련 커뮤니티에서 계속 질문을 했고 김종익 선생님 질문게시판에서 저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저와같은 내용의 질문은한 사람은 총 8명이었습니다

그 끝에 내린 결론은 김종익 선생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 선생님은

윤리와 사상 잘생긴 개념 23-2강 46분 6초에서 OX 문제 해설을 하며

2023수능 윤리와 사상 8번에 2번 선지인

비롤리-공화주의의입장에서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할 경우에도 성립한다"가 X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비롤리 공화주의자조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할 경우에도 성립한다 정말 비문인데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실현되려면요 비자의적 지배든 자의적 지배든 없어야 해요.{중략} 내 뜻대로 지배를 하든 내 뜻 없이 지배를 하든 비지배의 자유가 성립하려면 비자의적 지배든 자의적 지배든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생략)

이처럼 김종익 선생님은 비지배의 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의적 지배든 비자의적 지배든 없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EBS 해설에서는 다릅니다

8. 비롤리와 벌린의 사상 비교

정답 해설 : 같은 공화주의 사상가인 비롤리이고, 을은 자유주의 사상가인 벌린이다. 벌린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의로운 제도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비롤리는 누구도 자의적인 지배를 받지 않아야 자유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② 비롤리는 비지배의 자유가 법의 지배와 같은 자의적이지 않은 지배가 실현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③ 벌린은 자유의 경계선이 침범되지 않도록 소극적 자유 즉, '~로부터의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벌린에 따르면, '~을 향한 자유'는 적극적 자유이다.
- ⑤ 벌린은 공동체가 외부의 압제에서 벗어나더라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지 않았다. 벌린은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려면 개인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탐구 영역

8. 다음은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법은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 줍니다. 법이 모든 시민을 똑같이 구속한다면 시민들을 타인들의 자의적 의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시민들을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아닙니다. 법은 언제나 일종의 사술입니다. 실형 자의적 독재의 사술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법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경계선은 모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경계선이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의 핵심입니다.



- ① 갑: 자유는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 ② 갑: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할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③ 을: 자유의 경계선이 침범되지 않도록 ‘~을 향한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
- ④ 을: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의로운 제도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공동체가 외부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개인의 자유도 보장된다.

9.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쾌락의 추구하고 고통의 회피는 입법자가 살펴보아야 할 목적이다. 그러므로 쾌락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이다.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지니고 작업해야 하는 도구이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족해 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 ①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유용성이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임을 간과한다.
- ③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한 입법의 원칙을 세워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쾌락을 평가하는 기준이 양으로만 한정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⑤ 도덕적 평가의 근거는 규칙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임을 간과한다.

1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보다시피 EBS 해설에서는 비지배의 자유가 법이 지배와 같은 자의적이지 않은 지배가 실현되어야 가능하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신기하게도 김종익 선생님 본인이 작년에 촬영하신 23 수능 해설강의에서도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할 경우에도 성립한다? 비자의적인 지배에 해당하는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EBSI 한보라 선생님의 해설강의에서도

공화주의자들에게 비자의적인 지배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서 만든 법에 의한 지배이며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선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다고 했기 때문에 법이 없을 때도 성립한다는 말은 틀렸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또한 비자의적 지배인 법의 지배로 자유가 위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을 21수능 기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탐구 영역

이 갖는

이 위해 소유가 아니다. 작동할 개입을 다.

하는 지출의 소를

것만을

기서의 이 항상 여하는 수 있다. 있다.

정이다.

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 자유란 사적인 형태의 예속이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자유는 권력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예속으로 인해 자유가 부정되면 시민들은 공포에 빠진다. 을: 자유란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외부의 의도적인 강제로 인해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자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A -- 아니요 --> C{C}
      B -- 예 --> G[갑의 입장]
      C -- 예 --> E[을의 입장]
  
```

<법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보기>

ㄱ. A: 자유를 실현하려면 권력의 자의적 지배에 의한 간섭을 배제해야 하는가?
 ㄴ. B: 법의 **지배**로 인해 공화국 시민들의 자유는 위축되는가?
 ㄷ. C: 적극적 자유가 아닌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아야 하는가?
 ㄹ. C: 국가가 시민에게 좋은 삶을 위한 덕목 실천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당 문제는 21수능 기출이며 답은 5번입니다

같은 비롤리입니다

9. 현대 공화주의와 현대 자유주의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같은 현대 공화주의 사상가인 비롤리이고, 을은 현대 자유주의 사상가인 벌린이다. 비롤리는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를 참된 자유로 여겼는데 비해 벌린은 간섭과 방해의 부재를 자유로 보았다. 벌린에 따르면 '~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ㄷ), 국가가 시민에게 좋은 삶을 위한 덕목 실천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비롤리와 벌린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 비롤리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자유롭기 위해

법에 복종한다. 진정한 자유는 법에 의해 보장되는 평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김종의 선생님 본인이 21수능 해설강의에서 28분 4초 "비지배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법의 지배가 필요한 거죠"라고 해설하십니다

(제가 문제 삼은 23-2강의에서 해설과 과거의 김종의 선생님의 해설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김종의 선생님이 23-2강에서 비지배의 자유는 자의적 지배든 비자의적 지배든 없어야 성립한다고 말한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수있지만

좀더 확실한 증명을 위해 비롤리가 쓴 <공화주의>를 근거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김종익선생님의 주장 "비지배의 자유는 자의적 지배든 비자의적 지배든 없어야한다"

1.비롤리는 애초에 자의적지배와 비자의적 지배들다 없는 상황이 일어날수있다고 보았을까요?

3장 || 공화주의적 자유의 가치

해방시키는 입법조치들은 다른 시민들에게 있어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 제2장의 시작부에 있는 남편의 횡포에 저항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아내, 사용자나 감독자의 횡포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 남들의 자선행위(慈善行爲)에 의존해 있는 병자나 독고(獨孤) 노인과 같은 몇 가지 예를 다시 들어보자. 아내들을 예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남편들의 자의적 권력을 제한하면서 가정 내의 평등을 보장하는 법을 가져야 한다. 근로자들을 예속으로부터 지켜내려면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존엄을 지켜주고, 또한 사용자의 자의적 권력을 통제하는 법이 필요하다. 궁핍한 사람들을 자선행위로부터 해방시키려면 이들에게 충분한 공적 부조(公的扶助)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세금을 올려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서 보듯이, 어떤 시민들에게서 예속상태를 제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에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다. 즉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다. 예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제약을 늘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주종적 지배(또는 예속)와 법에 의한 제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공화주의적 전통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세워 시민적 의무를 약화시키는 정책들보다는 주종적 지배관계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선택해야만

아니요 "예속(=주종관계=자의적지배)를 제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소극적)자유에 제약(간섭=비자의적지배)을 가할 수 밖에없다 (중략).. 우리는 주종적 지배(또는 예속)와 법에 의한 제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둘 다를 선택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김중익선생님의 둘다 없어야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 김중익선생님은 비지배의 자유가 성립하려면 ~(생략) 비자의적 지배든 없어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롤리는 비자의적 지배가 없는 경우 비지배의 자유가 성립한다고 했을까요?

공화주의

의한 법률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공화주의적인, 또는 신로마주의적인 정치적 자유 관념이 정치적 자유의 직접적 행사라는 적극적 자유 개념과 다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스킨너는 자유가 “간섭이나 예측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³고 믿는 반면, 페팅은 자유는 오직 예측에 의해서만 사라지게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나는 고전적 공화주의 사상가들이 진정한 정치적 자유는 간섭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음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법에 의해 개인적 선택에 부과되는 제한이나 간섭은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화주의적 자유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이와 반대로 이사야 벌린은 “거의 벤덤 혼자서만 집요할 정도로 법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며, 벤덤은 ‘모든 법은 그 침해가 결국에는 자유의 총합을 증가시키더라도 자유의 침해인 것은 변함없다’”⁴고 말했음을 지적한다.) 고전적 공화주의 사



3. Skinner, *Liberty before Liberalism*, 84쪽을 보시오.
4. Isaiah Berlin, “Two Concepts of Liberty,” in *The Proper Study of Mankind*, ed. Henry Hardy (New York : Farrar, Straus and Giroux, 1998), 148쪽을 보시오.

아니요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나는 (중략)... 이들은 법에 의해 개인적 선택에 부과되는 제한이나 간섭은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화주의적 자유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비틀리는 자유를 위해 비자의적 지배인 법은 꼭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의 지배가 엄중하게 지켜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자의적인 의지를 타인들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된다."

"[클루엔티오를 위한 변론]의 한 문장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모두는 자유를기 위해 법에 복종한다"라는 문장이 바로 그것이다."

"자유 속에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억제나 "브레이크"가 구성요소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신념이다"

"자유가 존속하는 것은 오직 법이 시민들보다 힘이 셀 때뿐이라고 했다"

"15세기 후반 . 법의 지배가 시민적 자유의 초석임을 강조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메디치 가문에 반대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법이 통치자와 일반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제한들은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가하는 강제를 막아낼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유효한 방어수단이다."

"자유롭다는 것은 공평한 법 아래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까지만 적는데 더 많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익 선생님의 비지배의 자유는 자의적 지배든 비자의적 지배든 없어야 성립한다는 것에 반박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제가 김종의연구소에서 총 5번의 재답변을 받으며 들었던 생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제가 23수능해설강의의 김종의선생님과 개념강의의선생님의 해설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의 선생님이 실수로 그렇게 해설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사과하시고 실수를 인정하실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통해 총 6번의 재질문과 5번의 답변을 받은 결과 김종의 선생님들과 조교들은 **마치 해당 개념 강의에서 김종의 선생님이 비지배의 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인 비자의적인 지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설한 것처럼 즉 올바르게 해설한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아래 질문 글을 보며 참고하셔야 할 점은

저는 윤리와 사상 개념을 처음 배우는 상태였기 때문에 김종의 선생님이 비지배의 자유는 자의적 지배든 비자의적 지배든 없어야 성립한다고 말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강좌 : [윤리와사상] 2024 잘 생긴 개념

강의 : 23-2강. 국가의 기원, 사회계약설, 공화주의, 민주주의 - 문제풀이

북마크 & 질문 강의 시간 : 0:46:34

김종익선생님께서서는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와 자의적지배 둘다 없어야 성립한다고 강의에서 말씀하시고

제가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하더라도 자의적 지배가 있을수 있기에 비지배의 자유는 성립하지 않는것이냐 라는 질문에

답변은 "네, 그렇습니다. 비지배의 자유는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한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이었습니다

자의적지배로 부터의 자유이니 자의적지배 "만" 없는경우에 비지배의 자유는 성립하는건가요? 김종익선생님은 둘다 없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할경우에도 성립한다 라는말이 거짓이라면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와 자의적지배 둘다 없어야한다는 말은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하는 경우는 무조건 자의적지배가 있는 경우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경우에도라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와 자의적지배 둘다 없어야 성립한다는 결론을

좋은 금속화폐는 위조가능성과 변형가능성이 둘다 없어야 성립한다. 라는 예시로 바꾸면

8번 좋은금속화폐는 위조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는 맞는말 아닌가요?

좋은금속화폐가 성립하기위한 조건인 위조가능성이 없는경우는

위조가능성만 없는경우 ->성립불가 와

위조가능성과 변형가능성 둘다없는 경우 ->성립가능

이 두 경우가 존재하니까요

운사에서 경우도라는 말은

전자인 위조가능성 "만" 없는경우를 말하는건가요?

8번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지배가 부재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좋은금속화폐는 위조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라는 말이 부정될려면

위조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무조건 변형가능성이 있어야합니다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한경우 자의적지배는 무조건 존재하나요?

비롤리는 비지배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상가입니다.

비지배의 자유는 법에 의한 비자의적 간섭으로 실현되며 여기서 법은 그 자유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간섭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주장은, 비롤리가 할 만한 주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공화주의자들이 비자의적 힘으로서의 법을 이야기할 때, 이 법은 그 법과 관련한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이 비자의적 지배로서의 법을 이야기할 때의 지배와, 비지배 자유를 이야기할 때 지배는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지배가 부재함이라는 의미로서의 "비지배 자유"에서 지배는 다음과 같은 맥락을 지닙니다.

"지배력은 제약받지 않으며, 그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힘의 소유자에게 달려있다. 지배력은, 그것의 통치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약되지 않는다."

그런데 비롤리나 공화주의자들이, "비자의적 지배"라는 표현을 쓸 때 이때의 지배는 위와 같은 맥락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지배라는 말 자체는 임의성이나 자의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법은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발언권이 개입되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존재함으로써 합당성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할 경우에도 성립한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맥락에서 보아도 성립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한 맥락 위에 있으며,

그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교과과정 이외에 있기에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속 화폐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위답변에 따르면 김종익선생님 해설이 틀렸다는걸 인정하는꼴인데 무슨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이러한 맥락 위에" 일까요?)

밑에부터 질문을 할 때에는 여러 윤사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김종익 선생님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입니다.

재질문 **비지배의 자유**

사회 김종익 선생님 | 강좌 | 2023-03-15 등록

답변완료

강좌 : [윤리와사상] 2024 잘 생각 개념

강의 : 23-2강. 국가의 기원, 사회계약설, 공화주의, 민주주의 - 문제풀이

북마크 & 질문 강의 시간 : 0:46:34

비지배의 자유에서 지배는 예를 들어 법에서는 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될수있기 때문에

비지배의 자유에서 지배는 자유를 위해 존재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법인 비자의적 지배에서의 지배는 영항아래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발언권 개입으로 합당성을 가진다 라는걸로 이해 하면 되나요?

그럼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할경우에 성립한다 라는 말은

비자의적 지배에서 지배 즉 합당성을 가진 지배가 부재할 경우 성립한다 라는 말로 틀린 말이네요

이해가 된것 같습니다

강의에서는

자의적지배든 비자의적지배든 없어야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비자의적지배는 합당성을 가지고 시민에 간섭하여 비지배의 자유를 누리게 하니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잖아요

"비지배의 자유가 실현될려면 비자의적 지배든 자의적지배든 없어야합니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지배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거 아닌가요?

해설을 알려면

비자의적 지배가 없는 경우에 비지배의자유가 성립하지않는다 라고 해설하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해서 둘다 없어야 성립한다라는 해설이 나온건가요?

비지배의 자유

2023-03-15 답변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을 물을 때는 개별 학자의 견해를 묻기보다, 공화주의적 자유를 주장한 학자들에게 공통된 견해를 물어봅니다.

보통 공화주의자들이, 지배 받는 이들의 통제를 받는 지배력을 통해 자유를 보장한다는 맥락에서 말할 때는, 비자의적 지배보다, "비자의적 간섭"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잖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피지배자들의 적절한 통제를 받는 비자의적 간섭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말해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비자의적 지배에서의 "지배"의 맥락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배"의 맥락을 구분하시면 혼동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았을때 조교들의 답변이 명확하지않고 황설수설거리는 모습을 확인하셧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받을 당시

김종의 연구소 조교들이 김종의 선생님이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든 자의적 지배든 없어야 한다고 해설한 것이 아닌

비지배의 자유는 자의적 지배는 없고 비자의적 지배의 법에 의해 성립한다고 올바르게 해설 한 줄 알아 이렇게 답변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

분명 김종의 선생님 현재 교재. 작년 수능 해설강의에서는 올바르게 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재질문을 하여 김종의 선생님 본인에게 답변이 왔을 때 저는 김종의 선생님이 비롤리의 사상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있거나

심수를 감추기위해 일부러 질문자에게 혼란을 주려고 답변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질문 **비지배의 자유**

사회 김종익 선생님 | 강좌 | 2023-03-15 등록

답변완료

강좌 : [윤리와사상] 2024 잘생긴 개념

강의 : 23-2강. 국가의 기원, 사회계약설, 공화주의, 민주주의 - 문제풀이

북마크 & 질문 강의 시간 : 0:46:34

김종익 선생님이 비자의적 지배 자의적지배 "둘다없어야" 비지배의 자유가 성립한다고 해설한거는 왜 그렇게 해설했는지 답변을 제대로 안해주시네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찾아봤더니 작년 23수능 해설강의에서 8번에 2번선지 똑같은말

"비지배의자유는 비자의적지배가 부재할 경우에도 성립한다"이 선지

"김종익선생님 본인"이 비지배의자유는 비자의적지배인 법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직접 해설하시네요

EBS에서도 비자의적지배가 있어야 비지배의자유가 성립한다라고 해설되어있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김종익선생님이 본 강의에서는 똑같은 선지를 비지배의 자유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자의적지배 비자의적지배 둘다 없어야 한다고 해설 하신 이유가 뭔가요?

실수로 그렇게 해설 하신거면 강의 다시 찍으실거죠?

그리고 무슨 답변을 그런식으로 합니까?

거기서 지배랑 여기서 지배는 의미가 다르니 그렇게 이해 해야한다?
정확히말하면 지배가 아니라 간섭?

애초에 수능에서 그정도 지식까지 요구는 한답니까?

첨부파일 : [gna_20230315225259.jpg](#) 

비지배의 자유	2023-03-16 답변
<p>화가 많이 나 있구나 화가 날만해 왜냐하면 수능선지에서 고난도 선지로 나오는 선지가 문장이 성립이 안되는 비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다 보니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소리를 하는건가 싶은거야 그래서 그래.</p> <p>1번 비지배의 자유는 당연히 지배가 없어야 되겠지 그때 지배는 자의적이든 비자의적이든 비지배는 지배가 없는 상태의 자유이니까</p> <p>2번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정당한 간섭과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가 필요해 이때 법은 비 자의적 지배로서 기능하는 지배이지 이 비자의적지배에 해당하는 법이 있을때 실현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맞는 선지야</p> <p>3번 해당 선지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할 경우에도 성립된다. 라는 것은 일단 답변 생이 해준 말대로 출제제시문에서 의도한 바는 비자의적 지배에 해당하는 법이 있을때 비지배의 자유는 성립될 수 있다. 이때 비자의적 지배를 법으로 해석하는 것이고</p> <p>4번 비지배의 자유는 다시 1번 설명으로 돌아가서 '비지배의 자유는 성립한다' 가 수능 선지의 기본 명제야</p> <p>여기애다가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이때 비 자의적 지배는 법을 의미하면 맞는 말 이 말을 오답으로 바꿔야 하는데 매력적으로 바꿔야 하니 비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p> <p>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할 경우에도 성립된다.로 바꾼거야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할 경우에도 성립된다. 아니 자의적 지배가 있으면 성립되지 않으니 성립된다라고 하면 안되지! 비문이라 그래..</p> <p>그래서 너가 화가 나는 거고. 생은 다양한 설명을 해준거고 그래서 생은 이해가 8이란다~~ 힘내!!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생이 직접 와봤어^^</p>	

답변 내용 1번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든 자의적 지배든 없어야 성립한다.

답변 내용 2번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정당한 간섭과 법치가 필요하다 이때 법은 비자의적 지배로 기능하는 지배.

??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지배가 없어야한다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지배가 있어야한다
이 둘이 어떻게 양립할수있는건니까?

마지막으로 김종익선생님께

배에 해당하는 법이 있을때 비지배의
이때 비자의적 지배를 법으로 해석하

4번
비지배의 자유는 다시 1번 설명으로
'비지배의 자유는 성립한다' 가 수능

여기에다가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수 있다. 이때 비 자의적 지배는 법을
이 말을 오답으로 바꿔야 하는데 매력
드는 과정에서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
거야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
의적 지배가 있으면 성립되지 않으니
비문이라 그래...

그래서 너가 화가 나는 거고..

쌤은 다양한 설명을 해준거고

그래서 쌤은 이해가 8이란다~~

힘내!!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쌤이 직

쌤은 아니라 윤사입니다.

밑은 같은 내용질문들을 정리한 폴더입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3JDgaPHru46JYD8ChRWTynwr16TtZaL5?usp=share_link